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읍면 현황청취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12~17일 2020년도 읍·면 현황 청취를 실시한다.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계획된 이번 읍·면 현황청취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해 읍·면을 방문하여 보고를 청취했던 기존과 달리, 읍·면장이 의회로 출석하여 보고하는 방식으로 간소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읍·면을 방문해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 격려를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읍·면사무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굳건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소독의 날' 운영

정읍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전파 원천 차단을 위해 매주 목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12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매주 목요일 공공청사, 공공시설, 공공기관 등 1천 12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독에는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과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주 목요일 이들은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시설 내 손잡이와 계단 난간 등을 분무형 살균수로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소독의 날과 관련하여 앞서 시는 지난 11일 각 실과소와 읍면동, 공공기관 등 550개소에 소독약품을 배부했다.

또한, 소독자가 방역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소독 활동을 하도록 대상 기관에 소독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안내했다.

더불어, 수시로 공공기관 등에 소독약품 지원량을 조사해 약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보리차 효과' 고창군 덩실

### 하이트진로 블랙보리 누적 판매량 1억병 돌파 라벨에 '생산지' 표시... 농가소득증대 이어져

국내 음료시장에서 건강 보리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원료를 제공하는 고창군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12일 고창군과 (주)하이트진로음료 등에 따르면 '블랙보리'가 누적판매량 1억병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출시 이후 26개월 만으로 '보리음료 후발주자'의 신선한 돌풍으로 회자되고 있다. 기존 카페인, 설탕 등에 대한 반감과 구수한 송농문화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확하게 공략했던 평가다.

특히 블랙보리의 인기는 고창군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동력이 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18년 하이트진로음



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검정보리 특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연계한 보리 신품종 종자 보급, 국내 최대 검정보리 재배단지 조성, 보리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청보리 축제와 연계한 보리국수 음식 개발, 미국 등 해외 수출 등 보리산업 발전을 위해 공을

들었다.

여기에 업체도 2018년 고창과 해남에서 검정보리 150톤을 시작으로 지난해 400톤을 수매하면서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했다. 이에 더해 음료 라벨에 '고창에서 생산된 보리'로 만든다'는 상생협력 사례를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고, '착한음료'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실제 하이트진로는 '2019년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간 농식품상생협력 우수기업', '2019년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최우수상)' 등에서 선정되기도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농생명 식품산업을 균형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식품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 효과로 농업인들은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 정읍시 '착한 임대료' 행렬 동참 공설시장 임대료 30% 감면 혜택

### 5월까지... 코로나 장기화 따른 영세 상인 경제적 부담 줄여

정읍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공설시장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 행렬에 동참해 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설시장인 연지시장과 신대인시장 상인 162명이 이달부터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연지시장 문문성 변형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져 시름이

깊었다"며 "시에서 나서 사용료를 감면해주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날'로 정해 시장 직원들이 부서별로 지정된 날짜에 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지속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점포별로 손 소독제를 배부하고 시장 내 화장실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보건소, 중증질환자 마스크 무상 지급

### 편지 동봉 10매씩 우편 지급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

부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중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중증질환자에게 마스크 10매씩 우편으로 무상 지급했다.

특히 마스크와 함께 안부인사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이 적힌 편지도 동봉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했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2주 이내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63-580-3188)으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은어 우량 종자 하천 방류

### 육정호 상류 추령천 5만마리

정읍시가 기후 온난화와 하천 생태 환경 변화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은어 우량 종자를 하천에 대거 방류했다.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전복도와 시 관계자들은 산내면 매죽리에 위치한 육정호 상류 추령천에 은어 치어 5만마리를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 치어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시험장에서 직접 생산·공급한 우리 고유의 토종 어종으로 배쪽에 은빛이 반짝인다고 '은광어'라고

도 불린다.

가을에 수정·부화해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하천의 상류에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이다.

은어는 갈습과 철분, 비타민 등의 영양분이 풍부해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자연 건강식품으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미세먼지 대비 축사 관리 주의 당부

정읍시는 불철 미세먼지로 인해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는 기상청의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외부 공기 차단과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가축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통을 자주 청소하고 특히 폐렴 등 호흡기 질병이나 결막염 같은 안구 질환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됐다면 소독제를 뿌려 소독해 주고 1~2주일간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한다.

코의 점막이 건조하면 미세먼지가 몸 안에 남아있고 또, 공기 중의 세균

과 바이러스가 더 쉽게 체내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축사를 소독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한다.

반면, 미세먼지를 피하느라 환기를 하지 않으면 축사 안에 암모니아 같은 유해가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병에 걸린 소는 정상 소와 달리 배로 호흡을 하며 호흡 횟수가 늘고 심하면 헐떡거리기도 한다. 콧물이 코끝에 달려있거나 콧물 양이 많고 색깔이 변하면서 악취가 있는 것은 코와 호흡기 염증이 있음을 뜻한다.

센터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환기와 습도 등 축사 내부 관리와 함께 가축의 건강 상태를 관찰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